민주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 "패배 설욕…뼈까지 바꾸겠다"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국민 이익 지키는 정당 거듭날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이날 민주당 지방선거 총사 령탑으로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승리 결의를 다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윤석

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무능과 오만뿐이었고 국민의 인내는 바닥났다"며 "민주당은 무능하고 오 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책 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 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바려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으로 치르는 첫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난 패배 설욕을 위한 진격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승리를 위한 첫 조건은 처절한 반

성"이라며 "부족한 점은 용서를 구하고 새로 거듭나 겠다고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 모두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당을뼈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패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고문이 맡는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선대 위원장을 맡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등 17개 시·도지사 후 보까지 총 18명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자리한다.

이 밖에 총무, 전략기획, 정책, 조직, 직능, 홍보, 공명선거, 유세지원본부까지 총 8개 본부를 둔다. 각 본부를 아우르는 공동총괄본부와 종합상황실, 공보단도 가동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 외 17개 시 도지사 후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승리를 결의하 는 발언을 이어갔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도 열렸다.

6·1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전 지사의 '일성'은 출범 2일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었다. 초박빙 승부 끝에 패배했던 대선 두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거대 야 당의 구심점으로 재등판한 것이다.

그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 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며 "권력은 나뉘어야 균 형 속에서 견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남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에 대한 견제 심리를 자극하려는 포석이기도 했

그는 "(대선 이후) 어떤 장소에 가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정말 어려 웠다"며 "그래도 우리가 다시 또 출발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지방선거 대책위 출범식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11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출마자들과 함께 선거 승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방역 컨트롤타워 없이 열린 첫 중대본 회의

총리와 복지·행안장관, 질병청장 모두 불참

윤석열 정부의 후속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1순위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대 응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만 보더라도 방역수장의 부재가 눈에 띄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는 물론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질 병관리청장도 없는 가운데서 열렸다. 권덕철 복지 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의 경우 애초 언론에 배 포된 일정에는 참석 예정으로 돼 있었으나 불참했다.

이 때문에 전날 신임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일은 이전 정부에서도 종종 있었지만, 새 정부 첫 중대 본 회의 주재자로서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진 다.

중대본 회의를 이끄는 국무총리와 복지·행안부 장관 모두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기일 1 총괄조정관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 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위암 전문의이자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한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정책을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지명됐지만,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 정 등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으로 여전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사퇴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도가 하락해 코로나19 대응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 적도 나온다.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하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 정책을 이끌 새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도 일각에선 정 청장에 대한국민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유임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질병청은 정은경 청장의 중대본 회의 불참과 관련, "청장은 내부 다른 회의에 참석했으며, 통상 차관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차장(김헌주)이 참석해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광주서 선대위 회의····공천장 수여 권성동 "1석 이상 배출해야 민주 독주 막을 수 있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광주를 방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들과 당 원들이 열심히 해서 1석 이상 배출해야 광주 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 터에서 광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 당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모두 차 지한다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6·1 지방선거 광주 출마자 15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광주에서는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3명(양혜령 동구청장 후보, 강현구 남구청장 후보, 강백룡 북구청장 후보), 광역의원 비례대표 2명(김용임·김순옥), 기초의원 7명 등 15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다.

김현장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청년 기초의원 3명을 당선시킬 목표로 뛰겠다"면서 "정당 득표율 향상을 통해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 출마 후보자들은 12일 오전 선 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